

## ‘치과기공사’ 명칭변경에 관한 부산지역 치과기공사들의 의견 연구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기공학과

김 부 섭, 정 인 성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dental lab technicians in Busan about the retittle of 'Dental Technician'

**Bu-Sob Kim, In-Sung Chung**

*Dept. of Dental Laboratory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recognition of Korean Dental Technicians in Busan region about retittle of the name of 'Dental Technician'(DT), then to figure out the reality of retittle of the name(DT), so to provide data for whole country survey and to drive of the retittle of DT by Korea Dental Technicians Association.

For these purpose, 250 subjects were sampled out of dental technicians in Busan, and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ut of all collected questionnaires, 192 pieces(76.8%) were addressed for this study.

1) Their desires on changing of the name(DT), 57.4%(74/129) was agreed.

2) If they could change the name(DT), they hope 3 main new names and the others, Dental Lab Art Technician(39.2%), Certified Dental Technician(23.0%), Dental Prosthetic Technician(23.0%), the others(14.8%).

• Key words : Retittle of Dental Technician, Dental Lab Art Technician, Certified Dental Technician, Dental Prosthetic Technician.

교신 ■성명 : 김 부 섭      ■전 화 : 051-510-0593      ■E-mail : bskim@cup.ac.kr  
저자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9번지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기공학과

## I. 서론

발전하는 과학문명과 산업사회의 환경에 맞게 새로운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며 기존의 직업도 업무범위가 변할 수 있고, 사회적 위상과 인식의 변화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게 직업명이 바뀌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지적능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직업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최운재, 1998)

직업의 명칭 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인 감각에 맞게 바뀌거나 다듬어져 왔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히 그 직업을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에서 현대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면서 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한 명칭으로의 개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는 사례들이 있다. 근자의 직업명칭 변경 예로는 '운전수'에서 '운전기사'로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선원'을 '선박승무원'으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개칭하였다.

이에 '치과기공사'라는 명칭도 현실감각에 걸맞지 않다고 가정하여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우선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에 대한 개칭을 위한 공론화(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시도회 상정안건 중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제안, 2001)가 있었으며 그 결과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2003년 12월 6일의 제 39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제주도 치과기공사회에서도 '치과보철사'로의 개칭의견을 제안하였다.(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시도회 상정안건, 2003)

'치과기공사'란 직종과 명칭은 치과보철물의

수준이 높아지고 치과의사가 직접 정밀하고 제작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보철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타인에게 의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치아기공(齒牙技工)도 원래 구강진료행위의 일부라서 치과의사가 전통적으로 치아를 기공하였으나 분업원리에 따라서, 치과기공사에게 특정업무가 분화된 직업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전문팀으로서의 업무이다.(김종배 외, 1999)

우리나라에서의 치과기공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치과기공사는 전문 자격증(보건복지부 장관) 취득 후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로 보건 의료인력에 해당한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바탕으로 환자의 구강내에서 얻어진 작업모형상에 치과보철물, 치과충전물, 치과 교정장치 등을 제작, 수리 및 가공업무를 한다.(백종민, 2000; 의료법 3조, 영2조)

초창기 '치과기공사'는 일제시대에 치과의원 내에서 보철물 제작과 일반 잡무도 같이 하면서 치과의원의 조수와 같은 개념으로 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후에는 그 중에서 검정 제도를 거쳐 치과의사로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 후 치의학 교육은 있으면서 치과기공분야는 교육기관이 없는 기간이 있었으며 이 기간에 국가 면허제도가 없이 제한적인 치과기공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 중에는 아직도 예측 관계에 있는 직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상이다. 또한 일본에서 사용하던 명칭인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란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치과기공업무의 효시는 1907년 입지사 최승룡이 종로에 개업한 '이 해박는 집'으로 시작되어, 전문화되기로는 1945년 고 박승일씨가 서울 충무로에 세운 '경일치과기공소'가 최초의 치과기공소로 알려져 있다(대한치과기공사협회 30년사, 1994 ; 신종우 외, 2003).

의료기사 국가면허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부터는 대학에서 치과기공 교육이 시작되면서 '치과기공사'라는 직종은 체계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제는 치과보철술의 발달에 따른 정밀 하이테크 기술과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치과보철물이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독립된 치과기공소에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 따라 모든 '치과기공사'들은 국가면허를 소지한 인력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수준은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치과기공사'란 명칭은 일본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창기 치과 의원의 조수 같은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은 지금까지는 적절히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치과계는 임플란트를 위시한 신소재와 신기술의 발전, 첨단과학기술, 정보의 온라인 화에 힘입어 치과보철물 제작기술은 이제 수준 높은 정밀 하이테크 기술이 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치과기공교육도 4년제 학부 과정이 개설되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더욱 걸맞는 명칭이 있

다면 치과기공사들의 새로운 결속과 활력을 증대하고 치과기공사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명칭변경의 논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업종이 치과의사들이 손쉽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대리로 해주는 일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명칭이 있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과기공사명칭변경'에 대한 현직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을 조사해 볼 필요에 따라 부산지역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앞으로 논의 될 전국적인 의견조사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차원의 정책입안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조사는 조사대상자를 2002년 9월 9일 실시한 부산시 종합학술대회(보수교육)시 참석한 부산지역 치과기공사들을 상대로 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일의 설문지 내용만으로 읽어본 뒤 응답한 것이라 직업명의 변경과 같은 큰 주제에 대해 단시간에 답을 요구한 면이 우려되었으며 설문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하기 곤란하여 단순화 한 것의 제한점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등록되어 현재 치과기공소 및 치과기공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5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한 선다형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조사방법으로 2002년 9월 9일 제 38차 부산시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한 535명의 회원(대구회 2명, 경남회 1명 포함) 들에게 설문지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회수한 결과 내용이 완전한 설문지 129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설문내용은 '치과기공사' 라는 현재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2개의 문항으로 단순화하여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였다.(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산시 치과기공사회, 2002)

특히 연구용 설문지의 경우 작성항목이 너무 많아 응답자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본 설문에서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질문만을 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경품권을 하단에 부착하여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다.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예비조사사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것이 설문지의 3가지 명칭이다.

기본취지는 현실감각에 맞으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어감과 뜻을 가진 명칭을 찾아보자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명칭을 제시하였다.

1. '치예공사(齒藝工師)': '기공' 이라는 것에서 오는 투박성과 기계가공하는 듯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예술적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치예공사', '치과예공사' 로 선정하였다.

'치과기공사' 의 기본업무를 정밀기술이라고 보지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예술성, 심미성이다. 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 있으며 심미치과보철이라는 개념이 보철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치과기공사' 의 교육과정도 과거와 달리 잘 정비되어 치의학적 분야의 학습은 물론 보철물 제작 및 재료에 대한 공학적 해석과 이론, 예술적 감각을 위한 학습분야도 많이 도입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적 분야를 강조한 명칭이다.

2. '치과기술사(齒科技術師)' 는 '기공' 의 '공' 자에서 오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많은 치과기공사들은 단순히 제작하는 보철물이 아닌 고난도의 기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3. '치과보철사(齒科補綴師)' 는 가장 타당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보철물' 을 제작하므로 '보철사' 라는 명칭이 좋다는 면에서 선정되었다.

참고로 <표 1>에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t-test로 검정, 평가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535명의 종합학술대회 참가자들이지만 배부된 설문지의 수를 추정할 때

250여 명에게 배부되었으며 140매가 회수되어 회수율 56%였다. 그중 무응답자 11매를 제외한 129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연구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당일의 응답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략하였다.

총 129명의 응답자중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는 응

답자는 55명으로 42.6% 였으며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는 의견은 74명으로 57.4%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는 응답자중에는 <표 2>와 같이 치예공사 29명, 치과기술사 17명, 치과보철사 17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추천명칭으로는 보철사 1명, 치무사, 치과의무사, 치과기사, 치예원사, 영어명칭으로 개칭, 의치예공사 등으로 나타났으며 4명은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 2>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명칭선택

| 제시된 명칭   | 인 원 | %     |
|----------|-----|-------|
| 1. 치예공사  | 29명 | 39.2  |
| 2. 치과기술사 | 17명 | 23.0  |
| 3. 치과보철사 | 17명 | 23.0  |
| 4. 기타 명칭 | 11명 | 14.8  |
| 합 계      | 74명 | 100.0 |

t -검정

| t     | 자 유 도 | 유의확률(양쪽) | 평 균 차   | 차이의 95%신뢰구간 |         |
|-------|-------|----------|---------|-------------|---------|
|       |       |          |         | 하 한         | 상 한     |
| 4.890 | 3     | .016     | 25.0000 | 8.7290      | 41.2710 |

.05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치예공사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IV. 고 찰

우리 나라의 직업명은 2000년에 12307개(한국직업사전, 2000, 2003년은 미공개)로 대단한 숫자이다. 이러한 직업도 사회의 변천에 따라 부침(浮沈)이 심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근래에 신설되는 직업명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거나 우리만의 독창적인 명칭으로 명명되지만 대부분의 직업명칭을 근대화 과정과 일제치하의 과정을 겪으면서 차용한 이유로 직업명에 대해 우리 정서와 맞지 않

은 것들이 많아 개칭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래 전에 실시된 '운전사(運轉士)'에서 '운전기사(運轉技士)'로의 변경('운전사'라는 명칭이 어감과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운전에 기사라는 좀 걸맞지 않은 명칭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이고 모든 운전사들이 만족해 하는 명칭으로 되었다. 직업명칭이 성공적으로 개칭된 대표적 사례이다. 그 당시 많은 직업명에 대해 개칭이 있었고(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근래에는 '선원(船員)'을 '선박승무원(船舶乘務員)'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개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바꾸고 선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원관련법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개칭한 것이다. 사실 '선원'이라는 단어만큼 간결하고 함축적인 좋은 명칭이 없을 것 같았지만 다섯 음절의 긴 단어가 훨씬 낫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1996. 9. 20)

'간호원(看護員)'에서 '간호사(看護師)'로의 명칭변경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998년에 '집배원'이 좋지 않다고 개칭하기 위해 현상공고까지 했으나 대체할 좋은 이름을 찾지 못하여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 '집배원'이란 명칭은 을사조약 체결이후 사용한 것으로 정통부에서는 '집배원'이라는 이름은 일제잔재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새롭고 현대적인 감각의 명칭을 원하고 있어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당시의 설명이 있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 외에도 '보험판매원'에서 '보험설계사'로 '식모'를 '가정부' 등으로 혐오 명칭을 개칭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편이다.

대학의 학과이름에서도 이런 현상은 많았는데 '농과대학'을 '산업대학', '자연자원대학', '생명과학대학' 등으로 '가정학과'를 '생활과학과', '원예학과'를 '식물생산과학과', '지질학과'를 '지구환경과학과', '축산학과'를 '동물자원과학과' 등으로 변경하였다. (조선일보 1996. 11. 06)

직업명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일본식 한자어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도 많고 정서상 다른 것도 많다. 일본의 센세이(先生)와 우리의 선생님(先生님)과는 차이가 있듯이 '의료기사(醫療技士)'나 '치과기공사' 명칭이 우리의 정

서에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의료(醫療: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금성출판사 국어사전, 2001)란 수단과 도구에 한정되는 의미를 주고 있으므로 직무관련 일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부적절 하다고 보며 '의무(醫務: "의료에 관한 사무나 일")'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비교: 의료기기, 의료기관, 의료시설, 의무장교, 의무병,) 또한, '기사(技士)'의 한자어도 스승 '사(師)'로 바뀌어야 좋다. 따라서 '의료기사(醫療技士)'는 '의무기사(醫務技師)'로 변경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 와 닿은 직업명칭이 될 것이다.

'기공지시서(技工指示書)'라는 용어도 지시 하달형이라는 뉘앙스로 인해 물론 우리와 맞지 않아 일본에서 사용하는 '기공지시서'를 우리나라에서는 '기공의뢰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구미에서는 'Dental Technician'(치과기술자)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국가면허를 가지면 'Certified Dental Technician(공인치과기술자-인증면허 소지자이므로)'이라는 좀 멋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예비조사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것이 설문지의 3가지 명칭으로 '치예공사', '치과기술사', '치과보철사'이다.

조사결과 '치예공사'는 명칭변경 찬성 전체 응답자 129명 중 명칭변경 의견을 가진 74명의 응답자중에서 29명이 선택하여 39.2%의 선호도를 나타내어 많은 치과기공사들은 예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치과기공사'들은 업무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섬세한 작품속에서 예술적인 면을 찾으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치과기술사'와 '치과보철사'는 각 17명씩으로 나와 23.0%를 나타내었는데 두 명칭 모두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7명의 다른 명칭을 적어준 응답자들의 명칭도 관심 있게 볼만 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치무사'라는 명칭은 관심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기공사' 명칭변경을 위한 공론화와 전 회원들의 노력에 대한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찾는다면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규에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있어서 '부정치과기공물'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모든 '치과기공사'들을 범법자로 일단 간주하고 있다는 뜻을 '치과기공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중 4항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직업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는 태생적으로 합법적이진 못한 것인지, 평등권 침해에 대해 위헌(違憲)여부를 요청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직업의 전문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미숙했던 시기에 사용되었던 명칭과 법규라면 자구가 가지는 의미를 떠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도 명칭의 변경과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시행규칙 1, 2, 3항에 명시된 내용들은 주문자인 치과의사와 제조자인 치과기공소 간에 해결되어야 할 내용을 지도치과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성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명칭변경이 주는 파급효과로 '치과기공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이직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치과기공계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직업에 대한 의식구조에서 비교적 치과기공계의 미래가 밝고 낙관적으로 평하고 있다.(최운재, 1998)

전문교육을 받은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치과기공분야를 선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타직종으로 가거나 이직률(52.2%)이 높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명의 개칭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하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쇄신에 힘쓰고 동시에 기존의 '치과기공사'들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직업명 개칭에 대해 미리 홍보된 것은 '치과기공사' 명칭변경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제 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의견으로 2002년 제안되어 치과기보를 통해 전국회원들에게 홍보된 사실(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2001)이 있을 뿐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원들이 잘 인식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57.4%의 회원들이 명칭변경이 바람직 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큰 비율이라고 사료되어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조사가 선행된 다음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협회차원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치과기공사' 명칭 변경 추진과정은 '대한 치과기공사 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내용

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관련법(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명칭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협회에서 공모하는 방안을 찾거나 회원들의 개칭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다음 선택된 명칭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부의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의 개칭에 대한 열의와 관심일 것이다.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 들은 과반수가 개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조사가 전국적으로 있기를 기대한다.

서구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의 업무 관계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주는 약사와 비유한다. 그래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가 'Work Authorization(작업 위임서)' 이다. 우리는 법규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서식이 있지만 일본식으로 '기공지시서' 라고 아예 '치과기공소' 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고객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또 변화를 추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 변화를 가질 때가 되었다.

직업명칭변경을 통하여 '치과기공사' 의 업무 분야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고 치과기공사 스스로 전문기술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직업명' 의 개칭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기공사 명칭변경' 에 대한 현직 치과기공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다수의 의견과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부산지역 '치과기공사' 들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추후 전국적인 의견조사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차원의 정책입안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 129명 중 74명이 명칭변경에 찬성하여 57.4%의 찬성이 있었다.

2)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74명중 29명이 '치예공사', 17명이 '치과기술사', 17명이 '치과보철사' 를 선호해 각각 39.2%, 23.0%, 23.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명칭을 기재한 응답자도 11명으로 14.8%였다.

### 2. 제 언

본 조사연구를 통해 부산지역치과기공사들의 '치과기공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현직 '치과기공사' 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새로운 명칭은 시대에 걸맞고 우리 정서에 맞는 명칭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되는 이름으로는 '치예공사', '치과기술사', '치과보철사' 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칭으로의 변경을 위한 공론화와 협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금성출판사 국어사전, 2001
- 김종배 외. 치학개론, 제4판, 고문사, 서울, 224, 1999.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30년사, 1994.
- 백종민. 보건의료법규, 청구문화사, 191-218, 2000.
- 신종우 외 12인. 치과기공학개론, 참운퍼블리싱, 21-24, 273, 318, 200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제 37차 정기대의원총회 시도회상정안건, 2001.
- 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2002.
- 제 39차 정기대의원총회 시도회 상정안건, 2003.
- 조선일보. 1996. 11. 06.
- 조선일보. 1996. 9. 20.
- 최운재. 한국치과기공사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 구조 조사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Vol.20. No.1, 95-115, 1998.
- 한국직업사전. 2000.

|   |  |
|---|--|
| <p>〈표 1〉 설문지</p> <h3 style="text-align: center;">'치과기공사' 명칭변경 설문조사 및 경품추첨권</h3>   |  |
| <p>■ 배경 : 지난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2001. 12. 08)에서 제안되어 협회차원에서 공문화하기로 결의된 “치과기공사 명칭 변경 안”에 대해 이번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좋은 명칭들이 몇 가지 제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다수로 선정해 주시는 명칭이 있어야 다음 대의원회에서 개칭결의를 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p> <p>설문 조사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경품권 추첨에도 응모해 주세요.<br/>감사합니다.</p>   |  |
| <p>■ 명칭변경 제안의견 요약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세기 새 시대에 맞는 좋은 명칭으로 개칭하여 “전문 기술인” 의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li> <li>치과가족으로서의 업무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종속적 의미를 가진 명칭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li> <li>성공적으로 개칭한 좋은 결과 사례 소개 :<br/>사법서사→법무사, 간호원→간호사, 선원→선박승무원 등</li> </ol>  |  |
| <p>다음 물음에 대해 ( )안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과기공사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br/>① 현재의 명칭 그대로가 좋다.                      ②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li> <li>명칭변경에 표시하셨다면 다음 중에서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대신 가장 적합한 명칭을 고르신다면? ( )<br/>① 치예공사(齒藝工師)                                      ② 치과기술사(齒科技術師)<br/>③ 치과보철사(齒科補綴師)                                      ④ 추천명칭( )</li> </ol> |  |
| <p>- 근무처 :<br/>- 성 명 :<br/>경품권 추첨은 2교시, 3교시 강의시작 5분전에 실시합니다.<br/>1등상은 폐회식때 추첨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 품 권〉</p>  | <p>- 근무처 :<br/>- 성 명 :<br/>경품권 추첨은 2교시, 3교시 강의시작 5분전에 실시합니다.<br/>1등상은 폐회식때 추첨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 소지〉</p> |